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요란하나 주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코로나 사태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하시는 전,후방 동역자님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UAUT 소식: 이충원 이사장님께서 임기를 마치시면서 어려운 상황임에도 대학의 1년 운영비에 해당하는 특별헌금을 해주셨고, 황호찬 총장님을 비롯한 동역자들의 기도에 힘입어 대학 종합관을 겸해 사용할 Jesus Cornerstone Church 건축이 8월이면 완공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태평양 아시아 협회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 지난 1월 8일부터 22일까지 ZOOM으로 한국 체육대학생들과 저희 대학 1학년생들간에 이루어졌고, 한동대학교와의 창업 프로젝트도 On-line으로 코로나의 장벽을 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열정을 가진 믿음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감사한 일들: 아내 김지연 선교사도 혼자 걷는 것은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로 척추 골절의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면서도 칼빈 신학교를 떠났던 음카파 형제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다레살람 대학생이 된 에밀리아나에게는 컴퓨터를, 킹스비전 중학교에 다니는 실버스타 군과 하비바 양, 그리고 임업 전문학교에 다니는 글로리 자매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도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에 유학중인 저희 대학 출신 카티 자매와 메다디 형제가 이번 학기부터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박사과정에 UAUT출신 5명이나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 UAUT 이사진들과 총장님을 비롯한 동역자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2. 금년에 임기 만료되는 황호찬 총장님을 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총장님을 보내주시도록
3. UAUT가 하나님의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이사진들이 구성되도록
4. 헌신된 학사 부총장과 경영학 교수 및 새로 개설될 컴퓨터 사이언스 및 메카트로닉스 학과 교수님들이 확보되도록
5. 전문분야에서 재능 기부하실 헌신자들을 보내주시도록(전산, 재무, 행정, 건축, 조경, 식당, 태권도, 창업 훈련외)
6. 산학단지 조성 및 대학 수익사업을 위한 의료장비관리회사 설립이 잘 이루어지도록
7. 대학 교회 및 공학관 건축이 잘 추진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준비되도록
8. 현지 교수진과 스텝진은 물론 한국에 유학중인 졸업생들이 대학비전의 첨병이 되도록
9. 김지연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4월에 있을 막내 규한이의 결혼을 위하여

* 대학 후원: 하나은행 010-0406393-021 gms

2022. 3.31

작은 자 이진섭 드림